

중소 첨단기술 개발 1건당 5억씩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2008년 지원시책' 발표 벤처기업 660개로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올해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해'로 삼고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돕고 창업기업과 함께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14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기술혁신 프로젝트로는 우선 기술혁신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지난해까지 일반과제에 중점을 두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경쟁력있는 첨단기술을 다루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2년 이내에 3억~5억원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지원규모도 지난해 11개 업체 25억3천500만원에서 올해 15개 업체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사업도 과제의 양보다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중기청은 전략과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별 순회명회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13개 대학·127개 업체·25억9천만원 규모에서 올해에는 13개 대학·135개 업체·27억원으로 확대된다.

김낙찬 광주·전남중기청 기술지원과장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사업도 순회세미나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30개 업체보다 5개를 줄인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실화를 다지겠다"며 "특히 200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혁신형 중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도 당장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내 벤처기업을 지난해 600개보다 10% 늘어난 660개까지 육성하고, 창업동아리경

중소인 '노란우산공제' 큰 호응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 출범 5개월만에 가입자 5천명 돌파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5개월만에 가입자 5천명을 돌파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9월 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에 이달 14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5천명이 가입했다고 밝히고, 이런 추세라면 올 안에 공제가입자는 1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업체 대표에서 퇴임할 경우 생활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제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제조·건설·광업분야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업과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부금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개점 10주년

대대적 리뉴얼 공사 한창

올해로 개점 10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이 대대적인 리뉴얼(renewal·새로 꾸민) 공사와 함께 MD개편(Merchandising·매장개편)에 들어갔다. 이번 작업은 지난해 28일부터 '새단장'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5, 6층에서 시작해 전 층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리뉴얼 계획은 각 층 바닥에 고급자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6층에 고객편의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5층과 8층의 뿔러잇전 전장은 복개하는 등 매장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거나 변경하게 된다.

리뉴얼과 함께 2월 중순부터 시작할 대대적인 MD개편은 매장의 시각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고급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을 위한 상품군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1층 명품관과 2층 수입부품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6층과 9층의 빈 공간을 매립해 보다 넓고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고객차량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진입로를 변경하는 방안도 이번 리뉴얼 메뉴에 들어있다.

이와 함께 광주롯데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작업

도 펼칠 예정이다.

고객들의 구매성향과 구매빈도, 구매수준 등을 분석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대1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전개한다.

또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적극 활용, VIP 고객과 아파트 거주고객을 겨냥한 타겟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존 VIP 고객 라운지와 새롯데 라운지를 신설한다.

차별화·고급화 전략을 지향하기 위해 '편집 쇼'를 신설, 브랜드 물감이 작업에 나선다. 매출이 부진한 브랜드를 과감히 퇴출시키고 '젊은 명품 브랜드' 등 새로운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킬 방침이다.

구수희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이번 대규모 리뉴얼 공사와 MD개편은 광주점이 문을 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며 "고객들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에 맞춰 그동안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도 최우수 브랜드쌀 '녹차미인 보성쌀' 선정

보성군의 '녹차미인 보성쌀'이 2008년 전남도 최우수 브랜드쌀에 선정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8년 전남도 베스트 10' 선발 결과, 녹차미인 보성쌀이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강진군의 '봉황쌀'과 '프리미엄 호령'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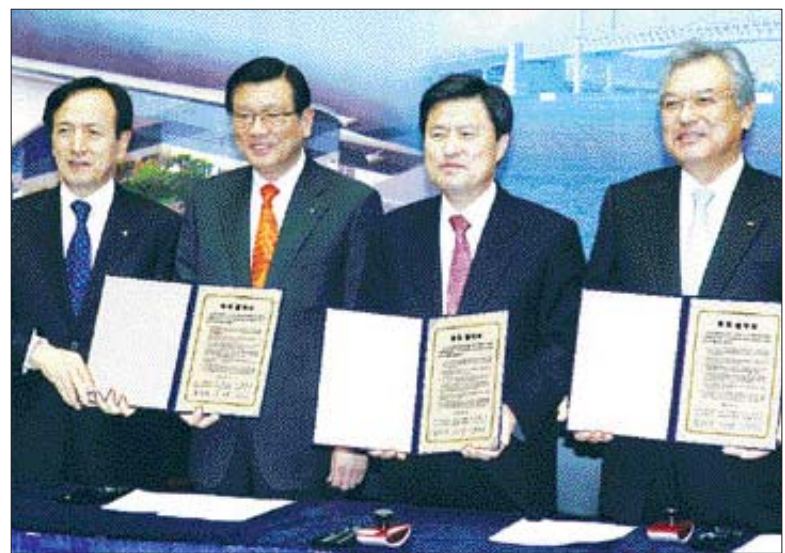
이어 영광군 '굴비굴 진상미', 해남군 '한눈에 반한쌀', 영암군 '하늘아래한쌀', 무안군 '쌀의 보약', 함평군 '나비쌀', 나주시 '드림생미', '왕건이 탐낸쌀골드' 등의 순으로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포함됐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베스트 10에 포함된 브랜드는 최우수 브랜드로 뽑힌 녹차미인 보성쌀과 굴비굴 진상미, 하늘아래한쌀 등 3개 브랜드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를 석권했던 해남군 '한눈에 반한쌀'은 중위권으로 밀렸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베스트 브랜드쌀에 대해 '2008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 전남 대표 브랜드로 추천하고 전남미 홈페이지(www.jeonnam-mi.co.kr)에 게재해 홍보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아시아나, 저가 항공시장 진출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14일 부산시청에서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조인식에 참석한 광주주 아시아나항공 대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신정택 부산국제항공 대표(왼쪽부터).

작년 광주·전남 중소기업 생산자금 65억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공공구매론'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65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지방중기청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수기로 진행됐던 공공구매론 지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계약사실은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탈피해 민간 금융자금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토록 연계해주는 금융지원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공공구매론 지원대상을 물품계약에만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 및 용역계약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확보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생산성본부·북구청 운영 '경제아카데미'

시민·공무원 3천여명 참여 성과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부(지부장 이윤병)와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운영한 경제아카데미에 시민과 공무원 등 3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제아카데미는 생활경제를 비롯해 경영·건강·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유명인사들의 강연을 마련, 지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농산물마케팅팀' 신설

농협전남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올해 농산물 판매를 전담하는 '농산물 마케팅팀'을 지역본부내에 신설하고 적극적인 농산물 마케팅에 나섰다.

기존 농산물 연합사업단과 양곡관측단을 통합한 신설팀은 시·군연합사업단과 지역농협의 미국종합처리장(RPC)과 유기적으로 연계, 판매기능을 강화해 올해 2조3천억원 규모의 전남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결산광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光.卍日.卍. 광고 마케팅국

● 전화 : (직)062-227-9600
● FAX : 062-227-9500
● E-mail : dd8111@hanmail.net

물 선물은 정상이 가득한 **떡볶이 떡볶이 세트**

www.tccn.com

1544-8567

SONY

Full HD 해상도, BRAVIA의 특별한 기법!

New BRAVIA

Sony Family

062-522-2000